

소방계동정

■ 지구별 소방서장 회의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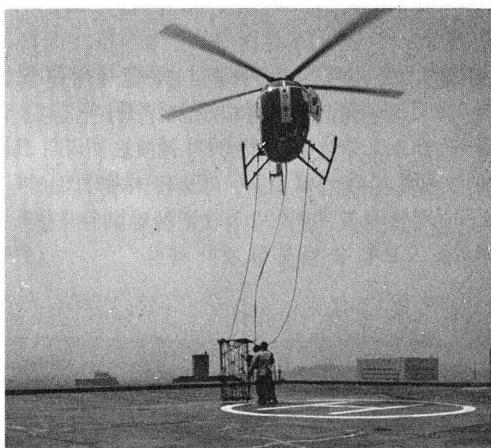
내무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3일간 서울, 부산, 대전에서 金大洋 내무부 소방국장 주재하에 시·도소방(행정)과장, 소방서장 등 84명을 대상으로 한 지구별 소방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소방관서 증설계획 추진상황과 건물주 책임, 자위소방력 보강대책, 대형화재 취약대상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보완대책 및 호텔등 주요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등 10여건의 주요시책 및 당면 주요업무 지침이 시달되었다.

■ 헬기 야간인명구조 훈련

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5월 4일 여의도 경제인 연합회 빌딩 옥상에서 야간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헬기를 동원, 화재진압 및 인명을 구조하는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.

이 훈련에서는 야간비행에 따른 지형구분 숙달 및 고층건물에의 접근방법, 이착륙 훈련, 헬기의 조명장비 조작, 구조낭 안전유도, 특공대원의 야간 인명구조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.



■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 회의 개최

내무부가 주관하는 「소방법 시행규칙 및 기술기준」의 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청취 회의가 지난 5월 24, 25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.

이 청취회에는 각계에서 28명이 참석하였으며 화재보험협회에서는 방재연구부의 박현식과장과 방재시험소 설립추진본부의 하정호과장이 참석하였다. 이 개정안에는 화보협회에서 제시된 기술기준 및 위험물 시설기준 등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.

■ 서울시 소방본부 발족 12주년 행사

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발족 12주년 기념 배구대회를 강남구 방배동 소재 서문여고에서 개최하였다.

시내소재 전 소방서에서 7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중부소방서와 종로의용소방대에 돌아갔다.

■ 전국 여자소방관 실습교육

내무부 소방학교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소방서의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자소방관 83명(소방대상건물의 각종 인·허가 담당)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.

이 교육은 서울시 소방본부 산하 10개 소방서에 각각 8~10명씩 배치하여 건축법, 소방법 및 소방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다.

이 교육의 주목적은 민원업무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토록 하고 서울의 발전된 소방행정 업무를 지방으로 확산 파급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